

환경운동의 이념과 현실 : 생태주의와 녹색당 운동을 중심으로*

유종선
울산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연구요약>

본 연구는 현대 환경운동을 주도하는 생태주의(ecologism) 이념과, 대표적 생태주의 환경운동인 녹색당 운동을 각각의 역사, 내용, 한계와 가능성 등의 차원에서 고찰하고, 이를 근거로 미래 환경운동의 방향과 전략을 전망하였다. 생태주의는 좁게 정의하기보다 환경과 삶의 관계에 대한 특정한 태도나 시각으로 이해해야 한다. 생태주의가 미래 사회의 지배 이데올로기가 될 것이라고 쉽게 말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미래 환경운동을 주도하는 이념이 될 것은 분명하다. 녹색당 운동은 정책 결정과정에서의 직접참여를 통해 생태주의적 가치들을 사회에서 구현하고자 하는 노력을 말하는데, 현재 뿐 아니라 미래에도 가장 주목받게 될 생태주의 환경운동의 하나이다. 녹색당 운동은 한국에서도 미래 환경운동의 유력한 대안이지만, 한국적 정치상황에 맞는 의제와 전략을 만들어야 하는 어려운 과제를 안고 있다.

A Study on Ecologism and the Green Party Movement

Jong Sun Ryu
University of Ulsan College of Social science

<Abstract>

Current environmental movements are directed by a set of specific values on environment and ecology called 'ecologism'. It is hard to say whether future society

* 본 연구는 1998년도 한국 학술진흥재단 인문사회 중점영역 연구비 지원에 의한 것임

will go through a 'paradigm shift' to ecologism, but ecologism will definitely be the ideology of future environmental movements. Green party movement, on the other hand, is and will be the most remarkable of the new ecological environmental movements. It also has great prospects as future environmental movement in Korea, though there remains a difficult task of drawing out appealing issues and appropriate strategies.

I. 서론

환경운동은 1960년대 이후 전세계적으로 강력한 시민운동으로 자리잡으면서 국가 그리고 국제적 차원에서 인간의 삶의 지형을 크게 변모시키고 있다. 20세기가 물질적 풍요의 이상을 추구한 시대였다고 하면 21세기는 축적된 풍요를 바탕으로 향상된 '삶의 질'을 추구하는 시대가 될 것이다. 환경이야말로 삶의 질을 구성하는 핵심적 요소이며, 그러한 의미에서 환경은 21세기적 담화의 중심의제가 된다. 환경운동은 환경담화를 이끌어가는 중심 세력으로, 이의 활동은 미래 인류의 삶의 모습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가 될 것이 분명하다.

본 연구에서는 1970년대 이후 세계 환경운동의 중심이념으로 자리잡은 생태주의(Ecologism)와 대표적 생태주의 환경운동인 녹색당(Green Party) 운동에 초점을 맞추어 현대 환경운동의 이념과 현실 그리고 미래환경운동의 바람직한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생태주의와 생태주의 환경운동의 등장배경, 생태주의의 내용과 한계, 녹색당 운동의 이념, 활동, 한계와 가능성,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국 녹색당 운동의 가능성과 한계 등이 본 연구의 주요한 논의주제가 될 것이다.

II. 생태주의의 이념과 한계

1. '신환경운동'과 이의 시대적 배경

근대화의 진전은 모든 영역에서의 다윈주의를 촉진한다. 환경운동 역시 수십년 전에 비해 단체의 수나 규모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었을 뿐 아니라, 운동의 목표, 철학, 행동의 유형 등이 크게 다양해졌다. 이 다양성이야말로 현대 환경운동의 가장 두드러진 추세가 아닌가도 보여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서구 사회만을 놓고 본다면 70년대 이후로 과거 주류로부터 여러가지 면에서 뚜렷히 구별되는 환경운동의 새로운 강력한 물줄기가 흐르고 있음을 보게 된다. 예를 들어 녹색평화(The Green Peace)라든지, 녹색당(The Green Parties) 운동, 생태주의적 공동체 운동 등인데, 목표, 전술 등에서의 부분적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환경문제의 원인, 결과, 해결책에 대한 인식, 나아가 환경문제의 본질적 성격에 대한 인식 등에서 분명 많은 것들을 공유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물론 경계선은 분명하지 않지만 이 새로운 물줄기로 흘러들거나 이의 지류를 이룬다고 보여지는 현대 환경운동들을 신환경운동, 또는 이들이 바탕을 두고 있는 새로운 세계관의 이름을 따 '생태주의적' Ecological 신환

경운동이라 부르기로 한다. 오늘날 생태주의적 신환경운동은 세계화와 근대화의 진전에 따라 서구만이 아닌 전지구적 차원에서 환경운동의 새로운 흐름으로 자리잡고 있으며, 앞으로 그 추세는 더욱 강해질 것으로 보여진다.

그렇다면 오늘날 신환경운동은 '구'환경운동과는 어떤 점에서 어떻게 구별되는가? [표1]은 각각을 대표하는 녹색평화운동(The Greenpeace)과 세계자연보호기금(World Wide Fund for Nature, WWF)을 몇 가지 측면에서 비교해 본 것인데, 양자간의 차이점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을 준다.

[표1]세계자연보호기금과 그린피스의 비교

	세계자연보호기금((World Wide Fund for Nature, WWF)	녹색평화(Greenpeace)
개요	1961년 창설. 27개 국가지부에 500만 회원.	1971년 창설. 40개 국가지부.
주도이념	환경보전주의 Conservationism	녹색 생태주의 Green Ecologism
목표	파괴위기에 처한 생태지역 보호 멸종위기 동식물 보호 지구적 환경위협(기후변화, 대양오염, 유해화학물질의 생산 및 투기)에 대처	생물다양성 보존 대양, 대지, 물의 오염과 훼손 방지 모든 형태의 핵위협 종식 평화, 지구적 준비해제, 비폭력의 증진
활동	<u>활동철학</u> 현실주의 비정치주의 <u>활동유형</u> 로비 환경보호 활동 및 연구에 대한 재정지원 공공 캠페인	<u>활동철학</u> 비폭력 정치적 자율성 확보 국제적 연대 <u>활동유형</u> 공공캠페인 시위 직접행동

(각 단체의 공식 인터넷 사이트(www.worldwildlife.org; www.greenpeace.org)에 게시된 정보를 근거로 필자가 정리)

위의 표에서 보면 세계자연보호기금과 그린피스의 가장 큰 차이점은 활동의제의 범위와 활동유형에서 찾아볼 수 있다. 먼저 활동의제의 범위로 볼 때 세계자연보호기금이 생태보호, 동식물 보호, 환경보전 같은 순수 환경적 의제만을 다루고 있다면 그린피스의 경우는 환경보호는 물론이고 군축, 핵위협 종식, 평화 등 '정치적' 의제들로 활동범위가 확대된다. 한편 활동유형의 측면에서 보면 세계자연보호기금이 전통적인 이익단체나 로비스트와 비슷한 행태를 보이는 반면 녹색평화는 좀 더 정치적이고 집단적인 행동의 경향을 보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과격한 탈법적 행동까지도 불사한다.

대표적인 두 개의 단체만을 비교한 것이지만 이는 전체로도 어느정도 일반화가 가능하다고 본다. 과거 환경운동은 오직 환경문제에, 그것도 환경의 보전(conservation)에 초점을 맞추었고, 행동방식도 로비, 계몽, 연구조사 등 비교적 '온건한' 노선을 택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오늘날 생태주의적 신환경운동은 환경 뿐 아니라 경제, 정치, 사회의 다양한 의제들로 관심의 영역이 확대되고 있다. 심지어 일부 환경운동의 경우 - 위의 녹색평화

가 그 예라고 할 수 있는데 - 환경문제가 주변의제화하는 경향마저 있어 과연 이를 ‘환경’ 운동이라고 부를 수 있을지조차 의문시되기도 한다. 이념에 있어서는 단순히 환경파괴의 방지, 환경의 보전과 회복을 넘어 어떤 총체적 사회변혁을 추구하고, 행동 또한 시위, 캠페인, 선거참여 등 대중적 정치운동으로서의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현대 환경운동의 추세는 한 마디로 의제의 확대와 행동의 정치화로서 요약될 수 있을 것이다.

환경운동의 새로운 물결(New Environmental Wave)이 1960년대 말-1970년대 초에 시작되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전문가들 사이에 별다른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신환경운동의 선구자라 할 지구의 벗(Friends of the Earth, FoE)과 녹색평화(Greenpeace)가 이 시기에 활동을 시작했다. 1972년 스톡홀름에서는 사상 처음으로 UN 주관의 세계환경회의(‘UN 인간환경회의’,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Human Environment)가 개최되었고, 같은 해 환경문제에 대한 기념비적 업적으로 꼽히는 『성장의 한계』 *Limits to Growth*가 로마 클럽에 의해 출판되어 세계적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 어떤 상황적 변화가 이 새로운 물결을 몰고 왔는가?

우선 지적할 수 있는 것은 전대미문의 대규모 환경사건들이 이 때부터 빈번하게 발생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유조선 토레이캐년(Torrey Canyon) 호의 좌초와 대규모 기름유출 사건(1967년), 라인강의 독성폐기물 오염사건(1969년), 미국 산타바바라 해상 원유채굴 시설 폭발과 이로 인한 해양오염(1969년), 일본 이타이타이 현 주민들의 수은중독 사건 등이 그것인데, 이러한 환경파괴 사건들이 갑자기 빈번해진 것도 문제이지만 사건의 규모나 피해의 심각성도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이 큰 것들이었다.

두번째로 환경, 그리고 환경문제의 원인과 결과에 대한 새로운 과학적 사실의 발견이다. 과학적 지식의 발전으로 월경성 대기오염, 지구온난화, 인구증가, 오존층 파괴 같은 ‘새로운’ 환경문제들이 밝혀지고, 동시에 이의 복잡한 원인체계와 예상 외로 심각한 피해상황도 밝혀지게 되었다. 이처럼 환경문제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그것도 더욱 심각하게 진전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 환경문제의 성격, 심각성, 대처방식에 대한 일반의 인식전환에 크게 기여했다.

세번째로, 대강 1960년대 말을 기점으로 근대문명에 대한 비판운동이 본격화되었다고 하는 사실이다. 베트남 전쟁의 비도덕성에 대한 인식의 확산이 이의 정서적 기반을 조성했고, 1968년 불란서 대학생들의 ‘5월혁명’과 미국 대학생들의 반전운동을 계기로 근대문명에 대한 급진적 반체제 운동이 본격화되었다. 운동이 진전되면서 전쟁 만이 아니라 사회적 빈부격차, 불평등한 국제관계, 성차별, 인권유린, 그리고 환경파괴 같은 근대사회의 여러 병폐들이 시민운동의 영역에 의제로 파고 들었고, 이들 문제들은 개별적이 아니라 상호연관되어 있으며 총체적으로 근대문명의 어떤 구조적 모순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인식이 확산되어 갔다. 이러한 인식의 변화는 환경운동에도 영향을 미쳐, 포괄적 문명비판 운동이 주요 의제들 중 하나로 환경문제를 포함시키거나, 환경문제를 핵심의제로 다루는 경우에도 이를 근대문명의 다른 문제들과 연관시켜 인식하고 행동하려는 경향이 점차 대세를 이루게 되었다.

네번째로, 냉전상황의 완화와 이를 계기로 한 국내, 국제정치적 상황의 변화이다. 1970년대에 시작된 동서냉전의 완화로 환경문제를 비롯하여 그 동안 안보문제에 압도되어 가려져 왔던 군사외적 현안들이 정치적 관심의 전면에 부상하게 되었다. 오늘날에는 안보가 반드시 군사적 차원의 문제만은 아니라는 인식이 점차 세계적 공감대를 형성해가고 있는데, 인간안보(Human Security), 환경안보(Environmental Security) 같은 ‘비전통적’ 안보의 문

제들이 국제정치의 주요의제로 등장하고 있는 사실이 이를 잘 보여준다. 냉전의 종식은 또한 전세계적으로, 특히 제3세계와 구공산권에서 거센 민주화의 물결을 몰고 왔는데, 이러한 민주화의 물결이 환경운동을 비롯한 시민운동의 확산에 크게 기여했다.

마지막으로 세계화와 정보화의 물결을 지적할 수 있다. 인터넷을 비롯한 커뮤니케이션 기술의 눈부신 발전으로 이제는 어느 사소한 일도 지역적 경계를 넘어 곧바로 '세계화'하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어 유조선 발데즈 호 좌초사건은 사상 최악의 해양오염 사건으로 전세계적 관심을 끌면서 환경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을 다시 한번 크게 바꾸어놓았는데, 커뮤니케이션 기술이 오늘날과 같지 않았다면 이 사건이 그토록 커다란 반향을 불러 일으키지는 않았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환경운동들간의 상호연대적 활동이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이 용이해졌고, 이 과정에서 이념과 행동의 통일이 이루어져 운동의 효율성이 크게 높아졌다.

위의 여러 상황적 변화는 완결된 것이 아니라 지금도 진행되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의 변화가 몰고 온 환경운동의 새로운 물결이 또한 미래 환경운동의 주된 흐름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미래 환경운동의 방향과 전략을 이해하고 예측하기 위해서는 이 신환경운동의 내용과 본질, 그리고 이의 상황적 요인들을 정확히 이해하지 않으면 안된다.

2. 생태주의 - 정의

1970년대 이후 여러 상황적 변화는 환경운동을 이전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모시켰다. 위에서 우리는 이를 이념적 차원과 행위적 차원으로 나누어 보았는데, 행위양식이라는 것도 결국은 많은 부분이 이념의 변화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후자를 현대 신환경운동의 핵심적 내용이라 간주해도 큰 무리는 없을 듯하다.

신환경운동과 구환경운동 사이에는 환경문제를 바라보는 시각 자체에 근본적 차이점이 있다. 과거 환경운동에서는 환경파괴를 그 자체의 문제로만 인식하면서 환경파괴의 직접적 책임이 있다고 보여지는 정부의 정책적 오류, 부도덕한 기업, 일반인들의 인식부족 등에 초점을 맞추어 문제의 해결책을 모색했다. 반면 신환경운동에서는 환경파괴를 근대 산업사회의 어떤 구조적 문제로 보고 이 구조의 개선이나 혁파에서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찾고자 한다.

신환경운동의 시각에서 본다면 환경파괴는 빈부격차, 물질주의, 인간성의 파괴 등과 함께 근대문명의 구조적 병폐에 속하는 문제이다. 이의 치유를 위해 신환경운동은 근대적 가치와 제도들을 완전 또는 일부 부정하면서 새로운 가치관에 의한 문명의 재창조를 요구하게 되는데, 총체적으로 어떤 '생태적' 가치들을 지향하고 있다는 의미에서 이 새로운 가치관을 '생태주의'(Ecologism)라고 부른다. 생태주의야말로 현대 환경운동을 이해하기 위한 핵심적 개념이다.

생태주의는 논자에 따라 생태중심주의(Ecocentrism), 녹색주의(Greenism), 녹색이념(Green Ideology)이라고도 하고, 용례상으로 신환경패러다임(New Environmental Paradigm), 신생태적 패러다임(New Ecological Paradigm)등의 용어와도 거의 동의어로 사용된다. 여기에서 암시되듯 생태주의에 대한 정의나 이를 설명하는 방식은 매우 다양하고 때로 혼란스럽기까지 한데, 일단 여기에서 생태주의에 대한 다양한 정의와 설명들을 종합하여 이 단어의 지칭대상의 범주와 용례를 어느정도 확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진다.

먼저 대표적 생태주의 이론가로 인정받고 있는 앤드류 돕슨 Andrew Dobson에 따르면

생태주의란 단순히 환경보호나 손상된 환경의 회복이라는 차원을 넘어 환경(생태) 파괴를 가져온 근대 산업사회의 기본적 가치들을 부정하고 소위 '생태적 가치'라고 하는 새로운 철학적 기반 위에서 사회를 총체적으로 재구축하고자 하는 이념을 말한다. 그가 정의하는 바 생태주의는 다음의 원리들을 근본으로 한다.

- 생태주의는 근대 산업사회의 기본가치들(인본주의, 물질주의, 남성주의, 집단주의와 개인주의, 업적주의)을 부정한다.
- 생태주의는 물질문명 자체에 대해 비판적이다.
- 생태주의는 근대적 정치제도와 경제제도에 편입되기를 거부한다.
- 생태주의는 총체적으로 다른 삶의 모습을 지향한다.

이 총체적으로 다른 삶의 모습은 다양성(diversity), 상호의존성(interdependence), 장수(longevity), 여성으로서의 자연(nature as 'female') 등 '자연으로부터 얻는 교훈'에 입각하고 이를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Dobson, 24-28) 이렇게 본다면 돕슨에 있어 생태주의 담론의 주제는 환경이 아닌 삶이고, 생태주의는 단순히 환경운동에 관계하는 차원을 넘어 하나의 총체적인 정치적 이념이 된다. 이는 돕슨 자신이 '녹색 정치사상'(Green Political Thought)이라든지 정치적 생태주의(Political Ecologism)라는 용어를 즐겨 사용하는 데에서도 암시된다.

레인보우Stephen Rainbow가 유럽 녹색당 운동의 이념으로 제시하는 녹색이념(Green Ideology) 역시 정치적 이념으로서의 생태주의를 암시한다. 그는 녹색이념이 다음의 핵심적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다고 말한다.

- 낭비, 특히 재생이 불가능한 자원의 낭비는 비도덕적이다.
- 수많은 사람들이 기초생활품 부족으로 고통을 당하고 환경이 심각하게 훼손되는 상황에서 대규모의 불필요한 인간행위를 부추기는 가치들, 예를 들어 군비경쟁, 오락성 상품 생산, 상품선전 등은 혐오되어 마땅하다.
- 정치는 인간성의 변화를 위해 노력해야 하고, 인간이 그의 능력을 최대한 계발하고 자기성취를 이루며 진정한 인간관계를 향유할 수 있는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
- 돈의 가치를 우선시하는 것과 물질주의는 배척되어야 한다.
- 자연환경과의 조화 속에 존재하는 '아름다움의 세계'에 대한 미적 관심이 대단히 중요하다.
- 모든 의제들은 상호 연관되어 있다. 특히 정책결정에 대한 지구적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
- 근대사회는 과학, 기술 그리고 전문가들을 지나치게 신뢰하는 한편 직관, 애정, 박애, 영성 같은 대중적 지혜와 속성들을 폄하하는 불균형한 사회이다.
- 자연환경은 더 이상 소비의 대상으로만 간주되어서는 안되며, 환경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지속가능한' 상태로 유지되어야 한다.

(Rainbow, 15-6)

레인보우의 이 같은 설명은 돕슨이 생태주의를 설명한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을 뿐 아니라, 생태주의의 문명비판적이고 의제포괄적인 성격을 여실히 드러내 보이고 있다.

그런데 생태주의는 보통, 위의 돕슨과 레인보우의 설명에서도 암시되고 있지만, 그 자체

로서보다는 이와 대비되는 어떤 개념과의 비교를 통해 정의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구도완은 생태주의란 환경주의와 대비되는 개념이라고 하면서, 양자간에는 다음의 중요한 차이점이 있다고 설명한다.(구도완, 49-50)

- 첫째, 환경주의가 인간중심주의라면 생태주의는 생태중심주의이다.
- 둘째, 환경주의는 성장의 가능성과 잠재력을 신뢰하지만 생태주의는 이를 부정한다.
- 셋째, 환경주의의 전체적 기초가 현실주의라면 생태주의는 강한 이상주의를 지향한다.

구도완 외에도 캐튼 등은 ‘인간 예외 패러다임’(Human Exemption Paradigm)과 ‘신생태적 패러다임’(New Ecological Paradigm) (Catton and Dunlap, p.34)을, 밀브레이스(Lester W. Milbrath)는 ‘신환경패러다임’(New Environmental Paradigm)과 ‘발전-성장 패러다임’(Development-Growth Paradigm)을 대비 설명하고 있다.[표2]

[표2] 밀브레이스의 발전-성장 패러다임과 신환경 패러다임의 비교

발전-성장 패러다임	신환경패러다임
-경제성장과 발전 중시. 단기적 번영에 초점	-생태계의 생존을 강조하고 장기적 발전지속성을 중시
-생태계의 파괴가 지속적 경제성장에 의해 정당화됨	-어떤 경우에도 생태계 파괴는 정당화될 수 없음
-무한한 경제성장과 인구증가	-성장의 한계
-부의 극대화를 위한 위험감수	-부를 위해 생태적 위험 감수 불가
-시장의 신뢰	-예견과 사전계획 중시
-즉각적인 물질적 만족 중시	-단순함과 인격적 풍요 중시
-위계적 질서와 중앙집중	-수평적 구조와 분권화
-정책결정과 책임의 집중화	-결과과 책임의 개인화 및 지방화
-공공재보다 사유재산 중시	-사리 목적을 위한 공공재 파괴 불가
-과학과 기술의 신뢰	-과학과 기술에 대한 회의
-기계적이고 단순한 원인-결과론	-총체적/종합적 사고의 중시
-자유경쟁	-협력, 파트너십, 평등주의
-지배와 질서유지를 위한 폭력 인정	-폭력을 사회질서의 파괴요소로 인식
-인간의 이익을 위한 자연정복	-인간을 생태계의 콘텍스트에서 이해
-경제적 이익 추구를 위한 자유	-생태적 사회적 책임 수행을 위한 자유

(Milbrath, "The world is relearning its story about how the world works," in Kamieniecki, 25)

생태주의는 이처럼 논자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는 몇 가지 공통의 요소들이 있다. 곧 흔히 그 자체로서보다는 어떤 ‘반생태적’ 가치체계에 대한 반명제로서 제시된다고 하는 점, 근대 문명에 대한 비판 내지는 거부감이 이의 정서적 기반을 이루고 있다고 하는 점, 마지막으로 단순히 환경적 가치만이 아니라 공동체적 삶의 어떤 총체적 이데올로기를 지향하고 있다고 하는 점 등이다. 그러나 각각의 내용에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같은 생태주의라 해도 문제를 보는 시각과 태도에 있어 상당한 차이들이 존재하는데, 다음에서 이를 좀 더 상세히 살펴보기로 한다.

3. 생태주의의 이념적 유형

오늘날 생태주의라는 용어는 환경담화에 있어 일종의 유행어가 되었고, 사람들은 이를 어떤 ‘당연한’ 의미로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사실 위에서 돕슨 등이 정의하는 생태주의는 하나의 이념형(ideal type), 또는 혹자가 말하는 생태주의의 극단적 형태로서의 ‘심층 생태주의’(deep ecology)에 가까운 것이다. 혹자는 오직 이것만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생태주의라고 주장할지 모르지만, 실제 담론의 세계에서 용례를 기준으로 본다면 이 말은 위의 좁은 정의를 넘어 상당히 넓은 의미의 범주를 가지고 있다.

환경담화에서 환경 대신 생태라는 용어를 사용할 때 그 의도는 환경의 어떤 생태적 의미를 강조하고자 함일 것이다. 다시 말해 환경은 삶의 어떤 쾌적함이나 불편함을 주는 환경적 요소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삶의 다른 요소들과 불가분적으로 교직되어 있으며, 따라서 환경을 말한다는 것은 곧 삶(생태) 자체를 말하는 것이라는 생각이다. 그러나 이러한 시각은 소위 ‘심층 생태주의자들’만의 전유물은 아니다. 오늘날은 누구나 다소간은 환경문제를 그러한 시각에서 바라보며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생태주의는 환경문제에 관한 현대의 보편적 사조라고 말해도 좋을 것이다.

물론 개념을 이렇게 포괄적으로 정의하면 ‘생태주의자’들과 ‘비생태주의자들’간에 지금 벌어지고 있는 치열한 논쟁은 허공을 치는 싸움에 불과한가라는 질문이 제기될 수 있다. 여기 대해서는 두 가지 상호 연관된 답변이 가능하다고 본다. 먼저 생태주의자들이 생태주의의 반대개념으로서 흔히 제시하는 근대 물질주의, 지배적 사회패러다임, 인간중심주의 등은 다분히 ‘위장 사냥말’(stalking horse)에 불과한 측면이 있다. 근대 물질주의-다른 개념들도 마찬가지로-라는 것이 과연 학문적 용어로 사용될 수 있을만큼 그 실체가 분명히 규정될 수 있는 개념인지에 대해서는 심각한 의문의 여지가 있다.(Grey, 213) 두번째로, 생태주의자들과 비생태주의자들간의 논쟁은 생태주의인가 아닌가라는 논쟁이라기보다는 생태주의 내에서 특정 이슈들을 두고 벌이는 논쟁으로 이해해야 한다. 곧 환경문제의 본질, 원인과 처방, 생태적 가치, 근대문명에 대한 이해와 태도, 운동의 전략 등이 그것이다.

생태주의는 이러한 문제들을 둘러싸고 대립적인 몇 개의 입장으로 나누인다. 그 중에서도 환경문제의 본질, 그리고 이의 원인을 어떻게 보느냐 하는 것이 핵심적인 질문인데, 이를 기준으로 좌파 생태주의, 우파 생태주의, 근본주의적(fundamentalist) - 또는 심층 - 생태주의를 나누어볼 수 있다.

먼저 좌파 생태주의란 세계관이 전체적으로 전통적 좌파와 유사한 사상으로서, 환경문제를 자본주의적 병폐의 한 부분으로 인식한다. 곧 환경파괴는 빈부격차, 계급갈등 같은 다른 사회적 문제들과 같은 차원에 있으며, 이는 기본적으로 자본주의의 구조적 모순에서 비롯되고 따라서 오직 자본주의의 타파 또는 극복을 통해서만 치유될 수 있는 것으로 본다. 사회주의적 생태주의(Social Ecology), 또는 마르크스주의적 생태주의(Marxist Ecology)는 생태주의의 이 같은 좌파적 분파(또는 분파들)를 지칭한다.

그렇다면 우파 생태주의는 자유주의와 자본주의의 가치들이 생태적 가치들과 반드시 모순된다는 가정을 부정하고, 이러한 인식의 바탕 위에 자유주의와 자본주의의 생태적 개선 또는 보안을 통해 환경보전과 기타 생태적 목표를 추구하는 이념이라고 정의할 수 있겠다.

마지막으로 근본주의적 또는 심층 생태주의란 위에서 돕슨 등이 정의하는 생태주의와 가까운 개념이다. 즉 ‘근대적’ 가치와 생산양식 - 그것이 자본주의적이든 사회주의적이든 -

을 환경파괴를 비롯한 여러 사회적 모순의 근본적 원인으로 규정하고 이의 타파와 생태적 재구축에서 문제의 해결책을 찾는다.(Dobson, 180)²⁾

한편 황태연은 '환경이론'을 생태학적 케인즈주의, 생태학적 현대화론, 생태학적 탈산업화론, 탈자본주의론, 그리고 환경사회주의로 분류하고, 이중 처음 둘을 온건이론, 그리고 나머지를 급진이론으로 범주화하고 있다.(황태연, 45-106) 비록 환경이론 또는 환경정치이론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그가 설명하는 각 이론의 내용은 환경의 문제만이 아니라 환경과 연관된 사회경제적 구조 전반의 문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각각은 단순한 환경이론의 차원을 넘어 다소간 생태이론, 나아가 사회적 이데올로기의 성격을 지닌다.

황태연이 환경이론을 이렇게 분류하는 기준은 생태위기의 원인과 위기극복의 수단을 어떻게 보느냐 하는 것이다. ([표 3] 참조) 위에 제시된 좌-우, 이데올로기적-탈이데올로기적 기준에 따라 이를 재분류한다면 생태학적 케인즈주의와 생태학적 현대화론은 '우파' 생태주의, 생태학적 맑스주의와 환경사회주의는 '좌파' 생태주의, 그리고 생태학적 탈산업화론은 '근본주의적' 생태주의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표 3] 황태연의 환경이론 분류

	생태학적 케인즈주의 (또는 시장생태학)	생태학적 현대화론	생태학적 탈산업화론	생태학적 맑스주의	환경사회주의
환경(생태) 위기의 원인	자유방임시장	유형적 재화의 시장유통	'대기술' '대공업'적 산업구조	자본주의의 "가치증식적 착취과정과 노동과정의 모순"	(생태학적 맑스주의와 동일)
환경(생태) 위기의 극복방안	국가가 '보이는 손'으로 시장의 '보이지 않는 손' 규제	첨단정보, 서비스 분야로의 산업재편	생태학적 사회개조 ("다른 사회로의 개벽")	자본주의적 시장조절 체계를 극복한 시장의 새로운 조절양식	노동운동(또는 좌파정당)과 환경운동(녹색당)의 정치동맹

이외에도 논자에 따라 연녹색주의(Light Green)와 진녹색주의(Dark Green) (Dobson) '연한'(light) 생태주의와 '진한'(dark) 생태주의 (Rainbow), 순수생태주의와 무지개연합(rainbow-coalition) 생태주의 (Mueller-Rommel), 반동적(reactionary) 생태주의와 혁명적(revolutionary) 생태주의, 전근대적(pre-modern) 생태주의와 탈근대적(post-modern) 생태주의, 진보적-급진적, 이데올로기적-실용주의적, 실용주의적-이상주의적, 근본주의적-실용적 생태주의 등의 다양한 분류방식이 제시되고 있다. 전체적으로 본다면 생태적 위기의 원인과 처방, 위기극복의 전략 등이 분류의 주요한 기준이 되고 있으며, 이러한 기준들에 따라 좌-우, 급진적-보수적, 현실적-이상적 등의 분류의 틀이 제시되고 있다.

2) 구도완은 '환경담화'의 세가지 형태로서 좌파 환경주의, 환경관리주의, 그리고 생태주의를 말한다. (구도완, 51, 그림2-2). 본 연구에서의 좌파 생태주의, 우파 생태주의, 그리고 심층 생태주의에 해당하는 개념이라고 보여진다. 여기에서 그는 소위 좌파 환경주의와 환경관리주의는 생태주의가 아니라 반생태주의적 담화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듯이 보이는데, 우파적 환경관리주의라면 몰라도 좌파 환경주의에조차 생태주의라는 이름을 붙일 수 없다고 주장한다면 이는 생태주의를 독단적으로 지나치게 좁게 정의한 것이다. 특히 생태주의 자체가 사회주의와 역사적으로 뿌리가 닿아 있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더욱 그렇다.

그러나 어떠한 분류의 기준과 방식을 택하든 이는 말 그대로 하나의 분류, 범주화에 불과할 뿐, 현실에 존재하는 생태주의의 다양한 이념들을 그 내용들을 충분히 담아내면서 2-3개로 유형화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다. 중요한 것은 생태주의란 어떤 태도나 가치정향을 말하는 것이지 환경과 삶의 몇 가지 질문에 대한 특정한 답변들로서 쉽게 의미를 한정지을 수 없다는 것, 생태주의 내에서도 환경문제의 속성과 원인에 대한 인식, 환경위기의 해결을 위한 방안, 근대문명에 대한 태도, 생태적 가치에 대한 인식 등을 둘러싸고 넓은 이념적 다양성이 존재한다고 하는 것이다.

4. 이데올로기로서의 생태주의의 한계와 가능성

생태주의에 대한 다양한 정의와 분류방식이 있지만 현대사회의 환경위기는 곧 생태위기이며 이는 다소간 현대사회의 어떤 구조적 모순에서 비롯되고 따라서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현대사회의 구조적 재편이 요구된다는 것이 생태주의적 신념의 기초를 이룬다. 생태주의자들, 특히 근본적(또는 심층) 생태주의자들은 이념과 실천 면에서 생태주의가 암시하는 총체적 사회변혁의 측면을 강조하면서, 환경파괴를 비롯한 근대사회의 모순이 심화될수록 생태주의의 호소력은 더욱 커질 것이고 결국은 이것이 미래의 지배적 사회이데올로기가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동시에 생태주의는 생태위기로 삶의 위협에 직면한 인류가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임을 강조한다.

과연 그럴 것인가?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환경위기의 심화, 환경문제에 대한 지구적 인식의 제고로 생태주의의 호소력이 앞으로 커질 수는 있지만 어떤 극적인 상황의 변화가 없는 한 이것이 미래의 지배적 사회이데올로기가 될 수는 없다고 본다. 이는 영향력 있는 사회 이데올로기가 갖추어야 할 다음의 몇 가지 조건들이 생태주의에 결여되어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먼저 개념의 정체성 문제이다. 위에서 생태주의에 대한 다양한 정의와 분류 방식을 살펴 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생태주의가 정확히 무엇인지, 소위 '생태적 가치'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의문이 여전히 남아 있다. 생태주의라는 단어는 현재 극심한 용례의 혼란상태에 있는 듯이 보인다. 환경의 문제를 '생태'(또는 생태계, ecology)의 차원에서 바라본다고 하는 아주 느슨한 의미로서 이 말이 사용되는가 하면, 정치와 경제를 포함하는 총체적 사회이데올로기로서 생태주의가 거론되기도 한다. 심지어 일부 생태론자들이 생태주의의 반명제로서 규정하는 것이 생태주의로 지칭되는 경우도 있다. 이처럼 생태주의라는 단어의 용례가 워낙 혼란스럽기 때문에 과연 이 말에 지칭대상의 어떤 일관성이나 한계가 있는지도 의심스럽다. 어떻게 보면 오늘날 생태주의는 환경주의나 환경보호론을 대치하는 새로운 유행어에 불과한 것으로 느껴지기도 한다. 생태주의가 미래의 사회이데올로기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이같은 정체적 불확실성이 먼저 극복되지 않으면 안된다.

두 번째로, 생태주의의 이데올로기로서의 완결성과 내적 논리성의 문제이다. 이데올로기라고 하면 최소한 그것이 추구하는 어떤 궁극적 가치, 인간 본성에 관한 인식, 이상적 정치체의 비전, 행동전략과 전술 등의 요소들을 포함하고, 이것이 논리적 방법으로 서로 연계되어 있지 않으면 안된다.(레니, 123-9) 많은 생태주의 이론들은 이와 같은 이데올로기로서의 필수 구성요소들을 결여하고 있거나, 이들 사이의 논리적 연계가 대단히 취약하다. 예를 들어 생태주의가 추구하는 자연상태의 낭만적 자유와 사회적 평등이 어떻게 모순없이 동시에 추구될 수 있는지에 대해 대부분의 생태주의자들은 지극히 원론적이고 당위론적인

주장에 머무르고 있다. 시장경제와 국민국가라는 현대사회의 근간을 부정하면서도 - 이것이 '생태적 가치'와 어떤 연관이 있는지는 차치하고 - 전략과 전술의 차원에서는 이를 당연시하는 모순이 자주 발견된다. 물질주의를 배격하면서도 현대 문명이 가져다 준 물질적 풍요로움을 전적으로 포기할 준비는 되어 있지 않다. 한마디로 생태주의는 기존의 이데올로기들이 추구해온 가치와 제도들을 쉽게 부정하는 것으로 일관할 뿐, 이러한 부정에 대한 철학적 성찰은 크게 부족하다고 보여진다. 생태주의는 이데올로기 형성의 과정에서 볼 때 아직도 원칙의 선언이라는 초보적 단계마저 완전히 탈피하지 못하고 있는 듯이 보인다.

세번째로 이념의 차별성을 들 수 있다. 많은 생태주의자들이 생태주의의 질적 차별성을 주장하고 그런 의미에서 '패러다임' 또는 '패러다임 이동'(Paradigm Shift)(포터 외, 55-9; Milbrath, in Kamienieck, ch.1)이라는 용어를 즐겨 사용하지만, 그러나 실제 생태주의가 정의되는 것을 보면 이는 새로운 패러다임과는 전혀 거리가 멀다. 이 용어를 학계에 유행시킨 토마스 쿤에 따르면 패러다임이 변한다는 것은 사실 판단의 기준 뿐만이 아니라 사실판단을 요하는 질문 자체가 바뀌는 것을 말한다. 소위 '생태주의 패러다임'의 의제들은 '인간은 어떤 가치를 추구해야 하는가?' '국가는 타파되어야 하는가?' '어떤 개발정책을 추구해야 하는가?' '사회 권력구조는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 등 기존 이데올로기들의 핵심 의제들을 답습하면서 답변만을 일부 달리하고 있을 뿐이다. 이는 진정한 의미에서 패러다임 전환이 아닐 뿐 아니라, 실제 내용면에서도 생태주의는 기존의 일부 이데올로기들과 별로 다르지 않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좌파 그리고 근본적 생태주의와 사회주의 이데올로기의 유사성이다. 사상사적으로 생태주의와 사회주의는 뿌리가 같으며, 추구하는 가치와 제도의 많은 부분에서 이들은 의견을 같이 한다.(Weston, 117; Ryle, 7,12) 비판가들은 생태주의란 사회주의 이념에 환경의 의제를 첨부한 데 지나지 않는다고도 말하는데, 사회주의 역시 환경을 점차 핵심적 의제로 다루는 경향이 있고 이에 대한 가치, 태도, 전략 등이 생태주의와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결국 생태주의와 사회주의는 포장만 다를 뿐 내용 면에서는 거의 차이를 보이지 않게 된다. 이 같은 유사성은 생태주의에 대한 '우파'로부터의 공격을 용이하게 만들뿐 아니라, 철학과 현실적 경험 면에서 훨씬 단단한 기반을 가지고 있는 사회주의와의 경쟁에서도 생태주의를 불리한 위치로 내몰고 있다.(Rowell) 1990년대 이후 두드러지는 유럽 녹색당들의 퇴조가 이를 증명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가치실현의 현실성 문제를 지적할 수 있겠다. 생태주의, 특히 근본주의적 생태주의가 추구하는 생태공동체적 삶은 현대사회의 근간을 이루는 근대적 생산양식, 시장경제, 국가, 그리고 시민사회를 총체적으로 부정하는 바탕 위에서 있으며, 이는 필연적으로 생태주의의 이상이 얼마나 현실적인가 하는 의문을 불러 일으킨다. 물질적 풍요보다 환경보전을 우선해야 한다거나, 심지어 개발에 환경보전을 고려해야 한다는 기본적 가치마저 때로 비현실적인 것으로 치부되는 상황을 고려하면 더욱 그렇다. 가치실현의 현실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이데올로기는 대중 속에 광범위하게 침투하여 지속성을 유지할 수 없고 그렇게 되면 결국은 이데올로기로서의 생명을 잃게 된다. 현실의 벽에 직면하여 생태주의는 결국 추구하는 가치와 태도를 보다 현실적으로 수정하고자 하나, 이를 위해서는 다시 이데올로기적 독창성과 차별성의 상실이라는 치명적 대가를 치르지 않으면 안된다. 생태주의가 소규모 공동체적 이상을 넘어 대중운동의 이념으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현실과 이상의 괴리라는 이 오래된 벽을 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나 현재로서 이에 대한 적절한 답은 없는 것처럼 보인다.

그렇다면 생태주의 이념의 미래는 없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 위에서 생태주의 이념의 한계를 지적한 것은 생태주의가 미래의 '지배적 사회이데올로기'가 될 것이라든지, 생태주의로의 극적인 '패러다임 전환'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일부 생태론자들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한 것일 뿐, 생태주의가 미래 환경운동의 주도적 이념이 될 것임을 부정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생태주의는 이미 환경문제를 바라보는 보편적 인식체계로 자리잡았으며, 미래의 환경운동은 생태주의 이념에 의해 주도될 것이 분명하다. 다만 위에서 지적한대로 생태주의는 어떤 단일한 의미를 가진다기보다는 넓은 이념적 범주를 포괄하는 어떤 일반적인 시각과 태도로서 이해되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운동이 생태주의 이념에 주도된다고 해도 어떤 생태주의적 입장을 취하느냐에 따라 운동의 형태는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다음에서는 현대 환경운동의 가장 괄목할만한 현상 중 하나인 녹색당 운동을 중심으로 생태주의 환경운동의 미래를 전망해 보고자 한다.

III. 녹색당 운동의 이념과 한계

생태주의적 가치와 태도는 오늘날 환경문제를 바라보는 일반적 시각으로 자리잡고 있으며, 이러한 인식변화는 불가불 환경운동의 이념과 행동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물론 전통적인 환경보전운동에 미치는 영향도 작지 않지만 새로운 형태의 환경운동의 등장에서 생태주의의 특징적 영향이 단적으로 발견된다. 녹색평화 같은 급진적 평화운동, 노동운동이나 계급투쟁운동과 연계된 좌파 환경운동, '새로운 사회로의 개벽'을 지향하는 생태주의 공동체 운동 등이 그 예에 속한다.

생태주의에 고무된 이러한 친환경운동의 물결의 중심에 녹색당 운동이 있다. 생태주의가 어떤 총체적 사회이념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면 이는 필연적으로 이를 이데올로기 또는 정강화한 정치운동으로 발전하게 된다. 이러한 정치운동은 정치제도권 밖과 안에서 진행될 수 있는데, 이 안과 밖은 특정 정치운동이 취하는 생태주의의 이념적 정향에 좌우될 것이다. 다시 말해 근본적 생태주의는 제도권 밖의 정치운동을, 이념적 생태주의는 제도권 안의 정치운동을 지향할 가능성이 많다. 녹색당 운동은 제도권 안의 생태주의 정치운동을 대표하며, 1980년대 이후 친환경운동을 주도해 왔고 지금까지 가장 성공을 거둔 환경운동 가운데 하나이다.

녹색당 운동이 미래 환경운동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위치를 차지하게 될지를 예측하기는 쉽지 않다. 서구 국가들에서는 어느정도 성공을 거두었고 또 벌써 어떤 한계에 봉착한 듯이 보이기도 하지만 비서구 국가들에서는 이제 시작의 단계에 있다. 적어도 비서구 국가들에서 녹색당 운동은 미래 환경운동의 가장 강력한 흐름중 하나가 될 것이다. 본 절에서는 녹색당 운동의 역사, 이념, 가능성과 한계에 대한 고찰을 통해 미래 환경운동으로서 녹색당 운동을 전망해 보고자 한다.

1. 역사

녹색당은 소위 생태주의적 이념과 정책을 추구하는 정당들을 말한다. 그러나 생태주의라는 개념 자체가 애매하기 때문에 오직 이를 기준으로 녹색당과 비녹색당을 명확히 구분하

기는 어렵다. 녹색당 운동의 본거지인 유럽의 경우 유럽녹색당 연합(European Federation of Green Parties, EFGP)이라는 협의체가 구성되어 있어 이의 회원정당들을 녹색당이라 보면 될 것이다. 유럽의 지역에서는 대개 녹색당이라는 당명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로써 구별이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그러나 유럽 외에서는 녹색당들의 활동 자체가 미미한 수준이기 때문에 어떤 당이 녹색당인지를 구별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다.

[표 4] 녹색당의 명칭

Die Gruenen(오스트리아), Ecolo(벨지움), Agalev(벨지움), Strana Zelenych(체코공화국), De Gronne(덴마크), Green Party of England and Wales(영국), Esti Rohelised(에스토니아), Vihrea Liitto(핀란드), Les Verts(프랑스), Die Gruenen(독일), Prassini Politiki(그리스), Zold Alternativa(헝가리), Comhaontas Glas(아일랜드), Fed. Dei Verdi(이탈리아), Dei Greng(룩셈부르크), De Goenen(네덜란드), Miljopartiet de Gronne(노르웨이), Los Verdes(스페인), Miljopartiet de Grona(스웨덴), The Green Party(미국), 臺灣綠黨(대만)
--

유럽에서 녹색당 운동은 이미 1960년대에 시작되었으나, 선거참여를 목적으로 정당이 공식 결성된 것은 1973년 출범한 영국 녹색당이 시초이다. 그로부터 10년 안에 서유럽 주요국들과 미국, 그리고 오늘날에는 일부 구공산권 지역 국가들과 제3세계 국가들에서도 녹색정당들이 결성되어 활발한 정치활동을 벌이고 있다. 이들 녹색당들은 밀접한 국제적 연대를 통해 이념과 행동의 통일을 기하고 있으며, 특히 녹색당 운동의 본거지라 할 수 있는 유럽의 경우 유럽 녹색당 연합이라는 강력한 협의체를 조직하여 각국 전국선거와 지방선거, 그리고 유럽 의회 선거에 조직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그간 녹색당들이 거둔 정치적 성과를 보면 1981년과 이듬해 벨지움 지방선거에서 녹색당 후보들이 최초로 지방의회에 진출했고, 1983년 독일 선거에서는 녹색당(Die Gruenen)이 5.6%의 득표율로써 28명의 연방 국회의원을 당선시켰다.³⁾ 1987년에는 이탈리아에서도 녹색당(Lista Verdi) 후보 13명이 국회의원에 당선되었다. 오늘날 독일을 비롯 유럽 14개 국가 의회에 200여명의 녹색당 의원이 진출해 있다. 그러나 선거에서 녹색당에 대한 지지율은 국가별로 상당한 편차를 보이고 있으며([표 5] 참조), 일반적으로 전국선거보다는 지방선거에서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이는 경향이 있다.

[표 5] 1980-89 기간중 유럽 주요국 녹색당들의 총선 득표율

덴마크(0.7) 네덜란드(0.2) 노르웨이(0.2) 스웨덴(2.9) 오스트리아(4.0) 벨지움(6.0) 독일(5.1) 스위스(7.8) 핀란드(2.7) 프랑스(0.9) 그리스(0.1) 이탈리아(1.3) 영국(0.1) 스페인(0.5)
--

(출처 : Kamieniecki, 96, Table 4.1)

한편 유럽 녹색당들은 유럽연합(European Union) 의회 선거에서도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1989년 선거에서는 영국 녹색당이 15%, 그리고 1995년 선거에서는 스웨덴 녹색당(Miljopartiet)이 무려 17%의 득표율을 기록하기도 했다. 현재 유럽의회 627명의 의원 중 47명이 녹색당 소속이거나 녹색당과 정치적 연대관계에 있으며, 이들은 유럽 의회

3) 이하의 내용은 유럽 녹색당연합 공식 웹사이트(<http://utopia.knoware.nl>)에 게시된 정보에 근거함.

내 가장 강력한 정치세력 중 하나이다.

유럽 외 국가들의 경우 경우 녹색당들의 활동과 정치적 성과는 아직 미미한 편이다. 오직 오스트레일리아와 타이완에서 녹색당이 전국 국회의원을 배출한 사례가 있을 뿐이다. 미국의 경우 조직 자체는 거대하지만 아직 선거에 본격적으로 참여하지는 않고 있다. 제3세계의 경우에는 아직 이렇다 할만한 활동이 없다.

녹색당 운동은 1980년대에 가장 활발했고, 특히 독일 녹색당은 한 때 혁명에 비견될만한 놀라운 성공을 거두기도 했다. 비록 1990년대 이후로 활동이 다소 둔화되는 조짐이 있지만 녹색당은 여전히 미래의 유력한 대안으로서 그 가능성과 폭발적 잠재력을 인정받고 있다.

2. 이념과 정책

녹색당의 이념과 정책은 국가별로 많은 차이가 있다. 여기에는 각국의 정치경제적 상황, 환경적 상황, 정치적 전통 등이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녹색당들은 국제적 연대를 통해 공통의 이념과 정책들을 모색해 나가는 추세에 있다.

유럽 녹색당들의 경우 1993년 유럽 녹색당연합 결성시 채택된 '지도원리'(The Guiding Principles of the European Federation of Green Parties)를 공식이념으로 받아들이고 있는데, 이의 주요 내용은 [표 6]와 같다.

[표 6] 유럽 녹색당연합의 지도원리와 주요정책

지도원리	주요정책
생태적 소비와 생산 (Ecodevelopment)	부유계층의 소비제한 생태적으로 규율되는 새로운 시장 경제의 지방분권화(경제적 다양성 존중) 저발전국들의 대외채무 경감 및 폐지 GATT, IMF, 세계은행(World Bank) 개혁 환경비용의 가격반영 인구증가 억제 산업구조의 환경친화적 개편 구공산권 국가들에 대한 자본과 기술지원
이해관계의 공정한 해결을 통한 새로운 지구안보체제의 수립 (Common Security)	새로운 안보개념의 수립(인간안보) NATO의 폐지, 유럽안보협력회의(Conference on Security and Cooperation in Europe, CSCE)의 공동안보기구로의 승격 핵군비해제 방위산업의 민간산업으로의 전환 유럽시민사회의 구축 UN 개혁
평등한 권리에 기초한 새로 운 시민적 비전의 실현 (New Citizenship)	기본인권의 평등한 보장 환경권 인정 사회보장의 강화 남녀차별을 비롯한 각종 차별 철폐 사형제 폐지 마약 사용자의 투옥 반대 징집 거부권 보장 망명권과 이민권의 확대 각종 선거에서 비례대표제 확대 직접민주주의의 확대

(<http://utopia.knoware.nl>)

한편 미국 녹색당은 '10대 핵심 녹색가치'(10 Green Key Values)와 정책적 대안을 담은 '플랫폼 2000'(Platform 2000)을 공식 이념과 정책으로 채택하고 있다. '10대 핵심 녹색가치'는 다음과 같다.

- 풀뿌리 민주주의(Grassroots Democracy)
- 사회적 정의와 기회균등(Social Justice and Equal Opportunity)
- 생태적 지혜(Ecological Wisdom)
- 비폭력(Non-violence)
- 분권화(Decentralization)
- 지역기반 경제와 경제적 정의(Community-based Economics and Economic Justice)
- 페미니즘과 남녀평등(Feminism and Gender Equity)
- 다양성의 존중(Respect for Diversity)
- 개인적 책임과 지구적 책임(Personal and Global Responsibility)
- 미래지향과 지속가능성(Future Focus and Sustainability)

(<http://www.greenparty.org>)

'플랫폼 2000'은 위의 가치들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 정책대안을 밝힌 것으로, 주요 내용은 [표 7]과 같다.

[표 7] '플랫폼 2000'의 주요내용

대영역	주요정책
민주주의	직접민주주의제도의 광범위한 도입 비례대표제 확대 지방의 문화적 다양성 존중 가정보호 군사비 감축 IMF, 세계은행(World Bank)의 개혁 저개발국에 대한 원조확대
사회정의와 기회균등	대안교육을 비롯한 교육 선택권 확대 전국민 국가의료보험제 실시 사회보장제의 전면적 확대 환경세 신설 노동자 권익확대 사형제 폐지 동성애의 합법화 정부의 정보공개 의무 입법화 이민 쿼타제 폐지
환경적 지속가능성	화석 연료의 대체 에너지로의 전환 폐기물 처리시설의 공적 감시 폐기물 수출 금지 청정대기법(Clean Air Act)의 강화 저개발국의 식량자급을 위한 지원 강화 변형 유전인자의 지적재산권화 반대
경제적 지속가능성	지역 기반의 중소기업 지원 강화 환경비용의 가격 반영 최저 임금제의 생존임금제(Living Wage)로의 전환 GATT, NAFTA 폐지 반독점규제법의 강화 군사산업의 민간산업으로의 전환 정부 재정적자 축소

(<http://www.greenparty.org>)

비서구 지역 녹색당 운동의 대표적 성공사례로 간주되는 대만 녹색당(臺灣綠黨)은 미국 녹색당의 '10대 녹색가치'를 독창적으로 해석하여 이를 자신의 이념으로 내세우고 있다. 대만 녹색당의 주요 정책 프로그램은 [표 8]과 같다.

[표 8] 臺灣綠黨의 주요 정책 프로그램

분 야	정 책
국가안보	군사적 국가방위의 민방위 체제로의 전환 핵무기 금지 대만을 포함한 중국 연안국들의 중립화 미군의 동북아 철수
경제	조세정의 실현 민주적 노사 생산체제 구축 장기발전목표의 재조정 봉급 생활자들의 실질적 소득향상
에너지	핵발전소 건설 반대 환경친화적 구조로의 산업재편 에너지 사용의 효율화와 대체 에너지 자원의 개발
헌법개정	비핵, 중립 국가 선언 환경권의 헌법보장 직접민주주의 제도의 확대 실시 총통의 권한 제한 여성참정권 확대 단원제 국회

(<http://www.greenparty.org.tw>)

녹색당들의 이념과 정책을 비교해보면 거기에는 분명 어떤 공통의 가치와 정책적 요소들이 들어 있다. 예를 들어 인권의 절대적 보호와 확대, 직접민주주의, 사회적 정의와 평등,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제, 반군사적 시민사회문화, 다양성과 지방성의 존중, 반핵주의, 남북간 격차해소 등을 들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치와 정책의 우선순위, 의제, 정책적 대안, 그리고 이념적 성향 등에 있어서 미묘한 차이도 눈에 띈다. 미국 녹색당의 이념은 대체적으로 유럽 녹색당들의 그것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보수적이다. (예를 들어 핵문제, 마약 문제 등). 유럽 녹색당들은 지속가능한 경제에 가치와 정책의 우선순위를 두는 반면 미국 녹색당은 시민의 정치참여 확대에 일차적 관심을 가진다. 미국 녹색당이 중요한 의제로 다루는 의료보험 문제가 유럽 녹색당들의 정책에서는 그다지 주목을 받지 못한다. 한편 대만 녹색당은 중립주의, 반전, 반핵, 민주주의 등 국내, 국제적으로 - 특히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 - 중요한 정치적 문제들에 상대적으로 관심을 더 집중하고 있다. 이러한 차이들은 각국이 처한 정치경제적 상황, 국제적 위상, 각 사회의 문화적 전통의 차이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생태주의, 특히 위에서 말한 근본주의적 생태주의와 녹색이념을 비교해 본다면, 가치와 정책 면에서 많은 공통적 요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자간에는 한 가지 중요한 차이점이 있다. 곧 근대문명에 대한 인식이 그것이다. 생태주의에서는 생태위기를 비롯한 현대사회의 여러 병폐들이 근대문명의 구조적 모순에서 비롯된 것으로 본다. 따라서 이를 치유하기 위해서는 근대문명의 주요 가치들과 제도들을 총체적으로 무너뜨리고 생태적 가

치 위에 문명을 재구축하지 않으면 안된다. 생태주의는 곧 문명비판이다.

이에 비해 녹색이념은 근대문명의 물질주의적 생산소비 체제, 비민주성, 군사문화 등을 부정하면서도 근대문명의 총체적 부정을 지향하지 않는다. 자유는 녹색이념에 있어서도 여전히 핵심적 중요성을 가진다. 시장경제, 국민국가, 대의제 정치제도 등은 비록 개선의 여지는 있지만 제도 자체의 존재의의가 부정되지는 않는다. 위에서 우리는 생태주의가 이념의 고결성과 논리적 타당성은 인정되지만 현실성에서 한계를 지니고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 녹색이념은 생태주의의 이상을 현실적으로 가능한 수준으로 조정 변용한 것으로 이해하면 될 것이다.

3. 녹색당 운동의 성공을 위한 조건

녹색당 운동은 유럽(서유럽)에서 시작되었고, 국가별 차이가 있지만 지금도 유럽에서 세력이 가장 강하다. 북미에서도 활동이 활발한 편이지만 오랜 역사를 지닌 비정치적 시민환경운동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입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유럽과 북미 외 제3세계 지역에서의 녹색당 운동은 한마디로 미미한 수준이다. 몇 년 전 대만 총선에서 녹색당 후보 1명이 당선된 것이 제3세계 녹색당 운동의 거의 유일한 성공사례로 보고되고 있을 정도이다.

녹색당은 어떤 상황과 조건에서 태동하고 성공을 거두는가? 녹색당의 역사로부터 판단할 때 다음의 몇 가지 요소를 지적할 수 있을 듯 하다.

먼저 환경에 대한 관심과 인식의 제고이다. 녹색당이 환경 외의 일반적 의제들에도 가치와 입장을 표명하는 것은 하나의 대세로 보여지지만, 여전히 환경 문제는 녹색당의 핵심의제에 속한다. 그러므로 환경에 대한 일반인들의 관심과 인식이 높아지는 것은 녹색당 운동의 뿌리를 내리기 위한 기본조건이 된다.

환경에 대한 관심과 인식은 흔히 심각한 환경재앙이 발생하면 극도로 고조되며, 이를 계기로 녹색당을 비롯한 환경운동이 확산되는 경우가 많다.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 붕괴 사고가 1980년대 후반 유럽, 특히 북구에서 녹색당에 대한 정치적 지지 확산에 결정적으로 기여한 것은 잘 알려져 있는 사실이다.

그러나 환경재앙에 의해 고조된 환경에 대한 관심은 재앙이 사라지면 급격히 소멸되기 때문에 이는 녹색당 운동의 안정적 기반이 될 수가 없다. 환경적 인식과 관심이 지속적으로 고조되고 유지될 수 있는 어떤 사회적 상황변화가 중요한데, 이런 점에서 높은 소득수준과 비교적 공평한 소득분배 구조가 녹색당 운동이 성공하기 위한 1차적 조건으로 흔히 지적된다. 왜냐하면 오직 어느 정도 경제적 안정과 풍요가 있고 나서야 비로서 사람들이 경제적 (재)분배를 넘어 환경, 참여, 삶의 질 같은 문제들로 관심의 영역을 넓힐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Inglehart; Switzer, 41-2) 후진국보다는 선진 서구 사회, 그 중에서도 북구, 독일, 네덜란드 등 소득수준이 특히 높고 빈부격차가 상대적으로 작은 국가들에서 녹색당 운동이 활발하다는 사실, 그리고 유럽의 경우 경제적으로 안정된 화이트 칼라 직장인들과 중상위직 공무원들 가운데 녹색당 지지자들이 많다는 사실이 이를 어느정도 증명한다.(Kitschelt (a)) 그러나 같은 선진국이라도 일본에서 녹색당 운동 - 다른 환경운동들도 비슷한 상황이지만 - 이 전혀 성공을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면 높은 소득수준은 하나의 필요조건일 뿐 그 자체로써 녹색당 운동의 태동과 성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다음으로 강한 사회주의의 전통과 사회주의에 대한 폭넓은 사회적 기반을 들 수 있다. 이는 비록 녹색당들이 '전혀 새로운 패러다임'을 표방하고는 있지만 아무래도 이념적으로 우파보다는 좌파에 훨씬 가깝기 때문이다.(Kitschelt (b)) 이러한 사회적 조건을 갖추면서 동시에 전통적인 사회주의 정당들이 '실패'한 국가에서 녹색당의 성공 가능성은 더욱 커진다. 왜냐하면 사회주의 이념을 지지하지만 사회주의 정당에는 실망한 계층이 선거에서 녹색당으로 지지를 옮길 가능성이 많기 때문이다. 1980년대 녹색당 운동이 크게 성공을 거두었던 오스트리아, 벨지움, 핀란드, 독일, 스위스 등은 모두 1970년대에 사회주의 정당들이 단독 혹은 연정을 통해 집권했다가 선거에서 패배한 국가들이다. 물론 구 공산권의 예가 보여주는 것처럼 강한 사회주의적 전통 자체가 녹색당 운동이 성공할 수 있는 충분조건은 아니다. 그렇지만 녹색당의 정치적 이념이 크게 바뀌지 않는 한 사회주의에 대한 사회적 지지가 미미한 곳에서 녹색당이 성공을 거둘 가능성은 대단히 희박하다고 말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녹색당 운동은 선거를 통한 정치운동이기 때문에 선거제도, 예를 들어 선거구제나 비례대표제의 운용형태에 영향을 받는다. 또한 양당제인가 다당제인가 하는 정당구조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다. 대선거구 비례대표제 하에서, 그리고 양당제보다는 다당제 하에서 상대적으로 입지를 쉽게 확보할 수 있다.(Switzer, 38) 그렇지만 이러한 정치제도가 다른 요소들에 비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고, 어떤 선거제도, 어떤 정당제도가 녹색당의 성패에 어떤 영향을 얼마나 미치는가 하는 것도 상황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있다.

4. 녹색당 운동의 한계와 가능성

녹색당은 1980년대에 괄목할만한 정치적 성공을 거두었고, 특히 독일 녹색당의 놀라운 성공은 다른 지역에서 녹색당 운동을 크게 고무하였다 (이 때문에 독일 녹색당은 최초의 녹색당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세계 모든 녹색당들의 '모체'로 인정받고 있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녹색당들은 활동이 둔화되거나 기대한 만큼의 정치적 성공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특히 유럽 주요국들에서 '제3의 길'을 표방하는 사회민주주의 정당들의 급격한 부상으로 녹색당들의 입지는 갈수록 줄어들어가는 느낌이 있다. 녹색당들은 심각한 정치적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듯이 보이며, 극적인 자기혁신과 상황의 변화가 없다면 앞으로도 이러한 어려움은 계속될 것이다.

위에서 우리는 녹색당은 자주 기존 사회주의 정당의 대체재로서 인식된다는 지적을 했는데, 이는 녹색당에 있어 성공과 실패의 가능성 모두를 암시한다. 유럽의 경우 녹색당의 성패 여부는 기존 사회주의 정당의 부침에 전적으로 좌우된다.(Berkin, 109-26) 80년대 유럽 녹색당의 약진은 영국 노동당, 독일 사민당 등 전통적 사회주의 정당의 몰락에 힘입은 것이다. 반대로 이들이 다시 집권하게 된 오늘날 영국과 독일 녹색당은 급격한 쇠퇴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는 녹색당들이 기존 사회주의 정당들과 이념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녹색당은 원래 환경 단일의제 정당(single-issue party)으로 출발했고 기존 정당들이 환경의 문제를 주요 의제에 미처 올리지 못한 상황에서 이들과의 이념적 차별성을 부각시킬 수 있었다. 그러나 환경보호의 구호나 생태주의는 이제 녹색당의 전유물이 아니다. 좌우를 막론하고 환경문제는 주요 정당들의 핵심적 의제로 자리를 잡았다. 뿐만 아니라 선거참여 과정에서 녹색당은 불가피하게 환경 외의 광범위한 정치적 의

제들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었고 유권자들에게 호소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노선을 현실적으로 수정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그 결과 녹색당과 기존 정당, 특히 사회주의 정당들과의 이념적 차별성은 거의 사라지고 말았다.([표 9] 참조) 녹색당들은 사회주의 정당들과의 차별화를 위해 환경, 복지, 경제 등의 문제에서 좀 더 급진적인 입장을 표명하지만 유권자들은 그 차이를 크게 느끼지 못하거나 느끼더라도 이를 비현실적인 것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다.

[표 9] 자유주의, 사회민주주의, 제3의 길, 녹색이념의 주요가치와 정책의 비교

	신자유주의 (신우파)	고전적 사회민주주의	제3의 길	녹색이념
국가와 사 회	-최소한의 정부 -자율적 시민사회	-사회 경제적 생활에서 광범위한 국가개입 -시민사회에 대한 국가 지배	-활발한 시민사회 -동반자로서의 정부 와 시민사회 -직접민주주의의 확대	-자율적, 소공동체적 시민사회 -평등, 자유, 자조, 인권, 참여민주주의 -국가권력의 제한
시장과 정 부	-시장 근본주의 -경제적 개인주의 -노동시장의 유연성	-집산주의 -케인즈적 수요관리와 코포라티즘 -시장의 제한적 역할: 혼합적 또는 사회적 경제	-신혼합경제	-자유시장, 국가통제 시 장의 부정: 생태적으로 관리되는 시장경제
평등과 복지	-불평등의 수용 -안전망으로서의 복지국가	-완전고용 -강한 평등주의 -포괄적 복지(요람에서 무덤까지)	-통합의로서의 평등 -적극적 복지와 국가 의 사회투자 확대	-사회적 정의와 평등 -지방주의와 분권주의 -포괄적 복지
근대화 와 환경	-단선적 근대화 -생태계에 대한 낮은 수준의 인식	-단선적 근대화 -생태계에 대한 낮은 수준의 인식	-지속가능한 개발	-환경보전의 최우선 -지속가능한 개발
국제정치	-전통적 민족주의-현 실주의적 국제정치관 -양극적 세계에 귀속	-국제주의 -양극적 세계에 귀속	-세계주의적 민족 -세계적 민주주의 -범세계적 관리체제	-세계 시민주의 -남북간 불평등 해소 -군비해제와 공동안보

(신자유주의, 사회민주주의, 제3의 길은 기든스, 39, 119-224, 녹색이념은 위에 인용된 녹색당 웹사이트에 게시된 자료들을 근거로 필자가 재구성했음)

녹색당과 사회주의 정당들의 이념적 유사성 - 또는 그렇다고 하는 인식 - 은 사회주의적 전통이 미약하거나 반사회주의적 전통이 강한 제3세계 지역에서는 또다른 성격의 문제를 야기한다. 즉 유럽에서는 이 같은 유사성이 녹색당에 대한 정치적 지지의 단초가 된 반면 - 물론 결국에는 이를 다시 극복해야 하는 과제가 생겨나기는 했지만 - 제3세계 지역에서는 이것이 녹색당의 정치적 입지 자체를 극도로 어렵게 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제3세계 국가들에서 환경운동가들은 흔히 반체제인사, 공산주의자, 사회주의자, 무정부주의자, 과격분자 등으로 공격당하며, 이러한 공격에 의해 환경운동은 종종 치명적 상처를 입기도 한다. 실제 이들의 출신성분과 이념이 좌파 정치운동과 뿌리가 닿아 있는 경우가 많다.

아무튼 제3세계 국가들에서 녹색당이 사회주의와의 차별성을 확보하는 것은 유럽에서와는 또다른 차원에서 사활적 의미가 있다. 그러나 이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대안은 제3

의 이데올로기를 지향하거나 우파 쪽으로 노선을 크게 수정하는 것이지만 어느 쪽도 현실적으로 불리한 여러 문제들을 야기하게 될 것이다. 제3세계 국가들에서 녹색당 운동은 이런 지난한 과제를 안고 있으며, 동시에 이는 이들 지역에서 녹색당 운동이 아직도 활성화되고 있지 못한 이유가 되고 있기도 하다.

IV. 결어 : 한국 녹색당 운동의 가능성과 과제

한국에서 환경운동은 1960년대 말 산업화에 따른 환경피해가 빈발하면서 피해주민들의 항의와 보상요구로부터 시작되었다. 3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셈인데, 그러나 오랫동안 환경운동은 환경피해 당사자들과 일부 운동가 그룹 외에는 관심의 영역 밖에 있었다. 환경운동이 본격적인 시민운동으로 발전하게 된 것은 아무래도 1990년대 이후라고 할 수 있겠는데, 민주화의 진전, 경제성장에 따른 사회적 안정, 환경의식의 변화, 환경에 대한 지구적 관심의 증대 등을 이의 배경으로 지적할 수 있겠다.

1990년대 이후의 환경운동을 이전과 비교해 보면, 양적인 팽창과 더불어 환경운동의 내용도 크게 변했음을 쉽게 알 수 있다. 환경운동의 유형 자체가 다양해졌기 때문에 일반적 추세를 말하기가 쉽지 않지만, '정치적 저항운동'에서 '시민운동'으로의 커다란 전환이 있었던 것은 분명하다.(구도완, 229) 1980년대 말-1990년대 초 대표적 환경운동이었던 공해추방운동연합(공추련)과 1990년대 가장 큰 환경운동조직인 환경운동연합(공추련은 환경운동연합의 전신이다)을 대비해 보면 이러한 변화가 한 눈에 들어온다.([표 10])

[표 10] 공해추방운동연합과 환경운동연합의 이념과 활동 비교

	공해추방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
환경문제의 원인	사회경제적 불평등 독점자본 불평등한 국제관계	산업화와 도시화 성장위주 경제정책 부도덕한 기업 환경파괴적 소비문화
실천계획	반체제, 반외세 투쟁	산업구조 재편 정부의 경제정책 재조정 환경친화적 기업문화와 소비문화
운동의 주체	민중	시민
대안적 체제	민중 주체의 민주사회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사회

(출처 : 구도완, 221)

아무튼 한국에서 환경운동은 지난 10-15년 사이에 크게 활성화되고 사회적 지지기반을 넓혀 온 것이 사실이지만, 다른 한 편으로 때이른 정체의 조짐도 나타나고 있다. 이는 최근 불어닥친 경제불황이라든지 정쟁의 여파로 환경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전반적으로 퇴조한 영향도 있지만, 더 큰 이유는 환경운동이 시대적 흐름에 적절히 대처하면서 환경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다시 불러 일으킬 수 있는 대안을 찾지 못한 채 고답적 구호와 전략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새로운 이념과 행동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환경운동은 지금

의 정체성을 벗어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에서 환경운동은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가? 현대사회가 전반적으로 다양성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환경운동에 있어서도 어느 한 가지 방향만을 대안으로 제시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미 1990년대 들어 환경운동은 크게 다양화되는 추세에 있다. 환경운동의 시민운동화가 대세를 이루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이지만 정치적 저항의 전통도 여전히 강하게 남아 있으며, 근본생태주의를 지향하는 공동체 운동 같은 전혀 새로운 형태의 환경운동들도 등장했다.⁴⁾ 이러한 다양화의 추세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며, 이는 총체적으로 환경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제고와 환경문제의 해결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환경운동의 정치화는 이러한 다양화의 추세를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이다. 최근의 추세인 환경운동의 시민운동화는 의제와 행동의 비정치화를 내용으로 한다. 그러나 순수 시민운동으로서의 환경운동이 벌써 어떤 정체의 조짐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환경운동의 정치운동으로의 복귀 또는 방향전환이 있지 않으면 안된다. 여기에는 몇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다.

첫째, 원칙을 떠나 실제 차원에서 환경운동이 전혀 '비정치적으로' 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 왜냐하면 아무리 사소한 문제라 해도 환경문제는 언제나 어떤 정치적이고 국가정책적인 요인들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환경운동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시민적 지지기반의 확대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 환경운동의 순수 시민운동적 성격을 강조할 수는 있겠지만, 이를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은 환경운동의 자기정체성에 혼란을 초래하게 된다. 최근 환경운동의 급격한 둔화조짐은 근본적으로 환경운동의 이 같은 자기정체성의 혼란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한다.

두번째로, 한국에서 시민운동은 그것이 정치운동화할 때 더욱 폭발적인 지지와 힘을 얻는다. 아마도 이는 시민사회가 허약하고 '정치가 모든 것을 삼키는'(Henderson) 한국의 독특한 상황에서 비롯된 것이겠지만, 한국에서 시민운동이 오직 '순수 시민운동'으로서만 활동하고 성공을 거둔 예는 찾아보기 어렵다. 한국에서 시민운동은 정치운동화할 수밖에 없고, 역설적이지만 오직 이를 통해 시민적 지지기반이 확대된다. 최근 국회의원 선거에서 위력을 보인 시민연대의 활동이 이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세번째로, 환경운동의 정치화는 이미 전지구적 추세이다. 녹색평화(Greenpeace), 녹색당(Green Party) 등 명확히 정치적인 이념과 행동을 표방하는 환경운동들이 소위 친환경운동의 물결을 주도하고 있을 뿐 아니라, 세계생명기금(World Wide Fund for Life, WWF), 시에라 클럽 같은 전통적 환경보호 단체들도 보다 정치적으로 그들의 이념과 활동을 수정하고 있다. 이는 환경문제가 본질적으로 정치문제라고 하는 인식의 전환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이유들로써 환경운동의 정치운동화를 미래 환경운동의 바람직한 대안 - 또는 대안의 하나 - 으로 제시한다고 해도, 정치화의 내용은 단일하지가 않다. '정치제도권' 밖에서 제도권에 대한 압력, 권고, 저항 등의 행동을 벌일 수도 있고, 제도권 내부로 진입하여 국가 정책결정과정에서 보다 직접적으로 참여할 수도 있다. 이러한 행동의 차이는 물론 환경문제의 본질과 원인에 대한 인식의 차이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4) 예를 들어 '한살림 모임'이 대표적이다. 이러한 유형의 생태공동체 운동은 서구에서는 더욱 활발한데, 기독교나 원시 공산주의의 전통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는듯하다.

녹색당 운동은 후자, 곧 정치제도권으로 진입하여 환경 그리고 그 밖의 관련된 문제들에 대한 정부 의사 결정과정에 직접 참여하려는 정치운동을 대표한다. 녹색당 운동은 서구 특히 유럽에서는 큰 성공을 거두었지만 그 외의 지역에서는 거의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는 서구와 다른 지역간의 정치경제적 상황, 사회적 조건 등의 차이와 더불어 문화전통적인 요인도 중요하게 관계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한국에서 녹색당 운동은 환경운동의 바람직한 대안이 될 수 있는가? 한국에서 녹색당 운동은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

그 동안 녹색당을 창당하고자 하는 몇 차례의 시도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결국 이루어지지 못했던 것은 한국 녹색당 운동의 앞날이 결코 순탄치 않을 것임을 시사한다. 사실 현재의 상황에서 녹색당이 정치적 활동을 시작한다 해도 선거 등에서 주목할만한 대중적 지지를 얻지는 못할 것이다. 이렇게 추정하는 데에는 크게 다음의 두 가지 근거를 제시할 수 있다.

첫째, 선거에서 환경문제가 쟁점화될 수 없는 한국 정치의 구조적 상황이다. 환경문제가 중대한 사회적 문제로 거론되면서도 선거에서 이것이 쟁점화하지 못하는 이유는 선거가 정치, 경제, 이데올로기 등 좀 더 급박한 다른 정치적 문제들에 압도되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한국 사회가 겪은 경제적 불확실성은 경제발전과 성장을 한국정치의 최우선 과제로 다시 각인시키고 있다. 경제성장과 환경보호는 본질적으로 대립의 관계에 있다. 한국경제의 불안정성은 환경문제의 정치적 쟁점화를 막아 녹색당 운동을 비롯한 환경운동 전반에 불리한 여건을 조성하고 있다. 한국정치의 지역대결 구도, 권위주의적 정부, 남북대결 등의 상황도 녹색당 운동에 커다란 장애요소가 된다.

둘째, 모든 진보세력이 좌경시되는 한국 정치의 왜곡된 냉전적 시각을 지적할 수 있다. 진보세력 진출의 정치적 필요성이 인정되고 이의 사회적 기반이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역대 선거에서 진보세력들이 한결같이 실패를 거듭했던 이유는 어떤 진보이념도 좌경시되고 위협시되는 한국의 독특한 상황 때문이다.(손학규) 녹색당의 이념이 어디에서나 동일한 것은 아니지만 소득분배, 인권, 경제, 국방 등 국가의 주요 정책에서 녹색당은 일반적으로 온건 좌파와 매우 유사한 진보적 입장을 보인다. 한국에서도 녹색당 운동은 본질적으로 개혁적이고 진보적인 정치운동이 될 수밖에 없는데, 진보정치세력에 대한 한국정치의 왜곡된 시각을 극복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그러나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녹색당 운동은 여전히 한국에서 환경운동의 희망적 대안이다. 민주화의 진전, 특히 남북간의 화해는 녹색당을 비롯한 진보세력의 정치적 입지를 크게 넓힐 수 있을 것이다. 진보적 성향을 가지고 있으나 기존의 진보세력들이 흡수하지 못했던 일부 중산계층에 대해 녹색당의 이념은 강한 호소력을 발휘할 수 있다. 한국정치의 왜곡된 냉전적 시각으로 정치적 성장을 제한받았던 기존의 진보세력들에게도 녹색당은 유력한 현상타파의 대안이 될 수 있다.⁵⁾ 한마디로 녹색당 운동은 출구가 막힌 한국의 진보적 정치운동이 지향할 수 있는 한 가지 - 유일하지는 않을지 몰라도 - 희망적인 대안인 것은 분명하다.

5) 황태연이 녹색당과 노동운동의 제휴를 환경정치운동의 바람직한 대안으로 제시한 것은 한국적 상황에서도 어느 정도 타당성을 가진다고 생각한다. 이를 통해 녹색당은 노동운동의 진보적 이념을 수혈받을 수 있고, 노동운동은 그의 '위험한' 좌파적 성향 - 또는 그렇다고 하는 인식 - 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녹색당과 노동운동은 사회적 지지계층이 다른데, 이들이 모두 공감할 수 있는 정치적 의제들을 생산해내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이다. 황태연은 여기에서 지나치게 낙관적인 - 그러나 근거가 희박한 - 입장을 취하고 있는 듯이 보인다.

다만 지지기반을 넓힐 수 있는 새로운 의제, 기존의 진보세력과 차별화되는 새로운 진보적 입장, 그리고 유효한 전략 등을 창출해야 하는 대단히 어려운 과제들이 있다. 한국과 비슷한 상황에서 반전, 반핵, 중립주의라는 가장 급진적인 이념을 표방하면서 출범한 대안 녹색당이 거두고 있는 괄목할만한 정치적 성공은 이 점에서 많은 것들을 시사하고 있다.

참고문헌

- 게러드 포터 외. 1994. 『세계환경정치』(*Global Environmental Politics*). 이해찬 옮김. 돌베개
 구도완. 1996. 『한국환경운동의 사회학 : 정의롭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하여』. 문학과 지
 성사.
 손학규. 1993. “한국정치와 진보세력”. 한국정치학회 편. 『한국의 정치』 : 쟁점과 과제. 범
 문사.
 엔서니 기든스. 1998. 『제3의 길』(*The Third Way*). 한상진, 박찬욱 옮김. 생각의 나무.
 오스틴 레니. 1993. 『현대정치학』(*Governing : An introduction to political science*). 권만
 학 외 옮김. 을유문화사.
 이득연. 1998. 『환경운동의 사회학』. 민영사.
 황태연. 1992. 『환경정치학과 환경정치사상』. 도서출판 나남.
 Dobson, Andrew. 1990. *Green Political Thought*. London: Unwin Hyman.
 Kamieniecki, Sheldon, ed. 1993. *Environmental Politics in the International Arena :
 Movements, Parties, Organizations, and Policy*.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Elliott, Lorraine. 1998. *The Global Politics of the Environment*. MacMillan Press.
 Meadows, Donella H. et als. 1972. *The Limits to Growth; A Report for the Club of
 Rome's Project on the Predicament of Mankind*. New American Library.
 Switzer, Jacqueline Vaughn. 1994. *Environmental Politics*. St. Martin's Press.
 Rowell, Andrew. 1996. *Green Backlash : Global subversion of the environmental
 movement*. Routledge.
 Blowers, Andrew and Pieter Glasbergen, eds. 1996. *Prospects for Environmental Change*.
 Arnold.
 World Commission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1987. *Our Common Future*. Oxford
 University Press.
 Rainbow, Stephen. 1993. *Green Politics*. Oxford University Press.
 Dryzek, John S. 1997. *The Politics of the Earth : Environmental Discourses*. Oxfore
 University Press.
 Grey, William. “A Critique of deep ecology,” in *Journal of Applied Philosophy*. Vol.3,
 No.2 (1986)
 Inglehart, Ronald. 1990. *Culture Shift*. Princeton University Press.
 Kitschelt, Herbert (a). 1988. “The life expectancy of left-libertarian parties : Does
 structural transformation or economic decline explain party innovation?,” in *European
 Sociological Review*. Vol.4, No.2, pp.155-60.

- Kitschelt, Herbert (b). 1988. "Left-libertarian parties : Explaining innovation in competitive party systems," in *World Politics*, Vol.40, No.2, pp.194-234.
- Burklin, Wilhelm P. 1987. "Governing left parties frustrating the radical non-established Left : The rise and inevitable decline of the Greens," in *European Sociological Review*, Vol.3, No.2, pp.109-26.
- Mueller-Rommel, Ferdinand (a). 1989. *New Politics in Western Europe : The rise and Success of Green Parties and Alternative Lists*. Westview Press.
- Kuhn, Thoms S. 1962. *The Structure of Scientific Revoluions*,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Mueller, Rommel, Ferdinand (b). 1985. "The Greens in Western Europe," in *International Political Science Review*, Vol.6, No.4, pp.483-99.
- European Federation of Green Parties. (n.d.). "Guiding Principles of the European Federation of Green Parties." <http://utopia.knoware.nl>
- The Association of State Green Parties. (n.d.). "The Green Party Platform 2000." <http://www.gp.org>
- Green Party USA. (n.d.). "Ten Key Values." <http://www.greenparty.org>
- Green Party Taiwan. (n.d.). "Green Policy and Program." <http://www.greenparty.org.tw>
- The Association of State Green Parties and the European Federation of Green Parties. (n.d.). "Common Ground Statement." <http://www.gp.org>
- Weston, J., ed. 1986. *Red and Green*. Pluto.
- Ryle, Martin. 1988 *Ecology and Socialism*. Rodins.
- Henderson, Gregory. 1966. *Korea, the Politics of the Vortex*. Harvard University Press.

『미래 환경운동의 방향과 전략』에 대한 논평

정치외교학

김주홍

1. 환경문제는 과거 환경보호 또는 환경보존의 차원을 넘어서서 환경과 산업, 환경과 인간생존, 환경과 우주개발 등의 영역으로 확장되어 가고 있으며, 특히 교토의정서 이후에는 한나라의 산업구조를 개편해야 하는 범세계적 규제의 문제로 나타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유종선 교수의 논문은 시의적절한 시도라고 생각한다. 유 교수는 논문에서 소위 패러다임 이동(paradigm shift)을 중심으로 환경운동의 미래상황적 변화에 미칠 방법론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유 교수는 현재의 사회패러다임을 물질문명주의(materialism)으로 규정하고 그것이 현대산업사회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며, 그것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현상들의 출현에 따른 새로운 패러다임을 모색하고 있다. 특히 '성장의 한계'에서 '지속가능한 개발'을 거쳐 신환경패러다임으로 넘어가야 하는 이유를 밝히면서, 이것이 사회패러다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즉 환경문제가 녹색당의 출현과 약진의 과정을 겪으면서 정치화하고, 이를 통하여 새로운 '탈근대적 가치'를 지향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담론적 진보에 따라 한국의 환경운동도 정책적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2. 고찰하건대, 유 교수는 '작은 이야기'로 출발된 환경이야기가 변화하는 인간의 사회적 조건에 따라 거대이론(meta-theory)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하는 듯하다. 즉 환경운동이 신환경패러다임의 사회패러다임을 통하여 정치-경제-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화의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주장을 통하여, 사회를 '환경'이라는 변수에 의하여 설명하고 예측하는 논지를 펴고 있다. 그리고 그 예로 녹색당을 중심으로 한 '녹색운동'을 들고 있다.

3. 환경이론은 그것이 비판이론적 위치에 있을 때에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것이 정책패러다임으로 전환되었을 때에는 거의 모든 거대이론적 담론이 부딪혔던 한계에 봉착하게 될 것이 분명하다. 이미 환경규제에 관한 협정에 있어서 선후진국 간에 환경과 개발이라는 이분법적 문제제기가 나타나고 있으며, 한국가 내에서도 보존과 개발이라는 긴장이 표출되고 있다. 따라서 거대이론적인 사회패러다임적 전환이 반드시 미래의 환경운동에 대한 대안적 발상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재고의 여지를 질문한다.

4. 녹색당으로 대변되는 녹색운동과 정책효율화의 문제에 대하여 토론자의 입장에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유럽을 중심으로 각국에서 녹색당들이 결성되고 정치에 참여하여

왔다. 녹색당의 선거공약과 정강정책에 대하여 여론의 호응은 상당했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정치의 무대에서 녹색당은 의회에 거의 진출하지 못하였으며, 다만 최근에 약간의 의석만 차지하고 있을 뿐이다. 이는 많은 수의 사람들이 녹색운동의 당위성을 논리적으로는 이해하지만 그것이 정치-경제-사회적 현실과 어느정도 괴리되어 있다고 생각하며, 녹색당의 정책이 가지고 있는 정책적 합리성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녹색운동은 정치성을 희석하는 방향에서 오히려 커다란 의미를 가질 수 있으며, 보다 자유로운 입장에서 비판과 대안제시의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이에 대한 발제자의 견해를 구한다.